



포커스

핵안보 정상회의 정상외교의 의미와 성과

박재적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포커스
핵안보 정상회의 정상외교의 의미와 성과



통일 돋보기
UN 안보리 제재, 북한의 대외무역은?



Today 남북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북한 헤어스타일

▶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통일을 여는 사람들
14년전 북한 인권에 관한, 2016년 지금 이야기



통일 Talk
남한 소외계층에 통일씨앗 심는 유니시드 통일봉사단



작중우들 남한적응기
결혼식 끝났는데 집에 가잔 애길 안해요!

▶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



느낌 있는 여행
봄, 그 설레는 산책 충남 태안



통일 웹툰
선생님! 전 근사하지 않다고요!!



통일 레시피
비타민 가득한 채소가 듬뿍 북한식 남새밥 vs 남한식 남새밥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p>통일 플러스</p> <p>포커스 통일 돋보기</p>	<p>통일 스토리</p> <p>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남북공간</p> <p>Today 남북 작중우들 남한 적응기</p>	<p>민주평통365</p> <p>통일 청년아카데미 NUAC 뉴스</p>	<p>즐거움 통일</p> <p>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심포, 느낌표</p> <p>이벤트 당선작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③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핵안보 정상회의 정상외교의 의미와 성과

박재적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박근혜 대통령은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16년 3월 30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본 회의에 앞서 31일에는 총 3시간 10분에 걸쳐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순서로 오바마 대통령, 아베 수상,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4월 1~2일에는 51개국 정상 및 4개 국제기구 수장과 함께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번 박근혜 대통령의 양자, 삼자, 다자 정상외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일조하였다.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시작되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만난 양국 정상은 3월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여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정사는 북한에 대한 각국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조율하는 등 대북제재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아베 수상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실험 후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다.

양자 및 삼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본래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와 핵안전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가 직접 다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중국 등이 특정국가의 핵확산 문제를 의제화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과 대비된다.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핵안보를 증진시킴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례로 박 대통령은 북한의 과거 사이버공격 및 무인기 침투 전력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를 이용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첫째,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일조하였다.
-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 셋째,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복원시켰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2014년 3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 회담은 그 만남 자체만으로도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삼각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추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의 연계를 통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관계의 증진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역사적 구원, 일본의 우경화, 한국의 중국에 대한 고려 등으로 삼각 안보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인 한·일 정상회담이 2015년 11월에 개최되었고 12월에는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조심스럽게나마 삼각 안보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75분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은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조율하는 등 대북제재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회담 후 대언론 발표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수상은 한·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유보적인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이 3월 30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역사관과 전후 세대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지적한 것도 그러한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 할수록, 삼각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복원시켰다.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일곱 번째인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의 친밀감을 복원하기 위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회담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선물한 판다의 한국 도착에 사의를 표명했고, 타 국가 원수 중 시 주석과 가장 많이 정상회담을 가졌음을 언급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발전해왔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였는데, 이는 향후 한국과 미국이 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재개한다면 한·중 관계가 경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중 회담에 앞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연쇄 양자, 삼자, 다자 정상외교는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강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추동, 대 중국 관계 복원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된 4월 1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저지시키거나,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더욱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더욱더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된다.

종합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연쇄 양자, 삼자, 다자 정상외교는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강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추동, 대 중국 관계 복원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된 4월 1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저지시키거나,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더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더욱더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된다. 한국은 금번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처럼, 다양한 다자외교의 장에서 주도적으로 양자 및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같은 소다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UN 안보리 제재,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외무역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KOTRA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15·6)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 수출입 변화 추이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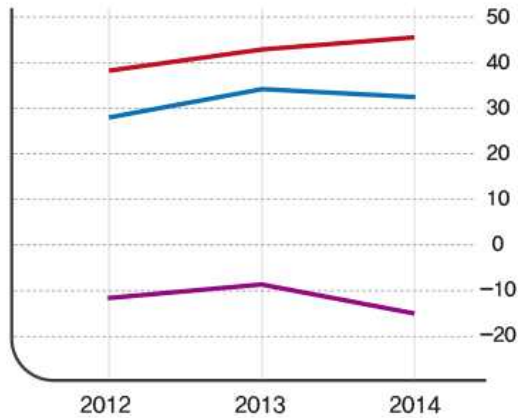
수출 31.6억달러



수입 44.4억달러



무역수지 -12.8억달러



자료: KOTRA

북한 국가별 무역 동향

중국

2014년
단위: 만달러



국가	수출액	수입액	비중
중국	28조4,147	40조2,251	90.19%
러시아	1,017	8,217	1.21%
인도	3,165	5,635	1.16%
태국	1,908	5,777	1.01%
방글라데시	5,195	28	0.69%

자료: KOTRA

북한 수출입품 구성비

2014년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



북한의 최대 수입품목



UN 대북제재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출입금지 품목

■ 수출 금지품목

- ①석탄 ②철강 ③철광석 ④금 ⑤티타늄광
- ⑥바나듐광 ⑦희토류

■ 수입금지품목

- ①항공유

※2016년 3월 3일 UN 안전보장이사회
내 대북제재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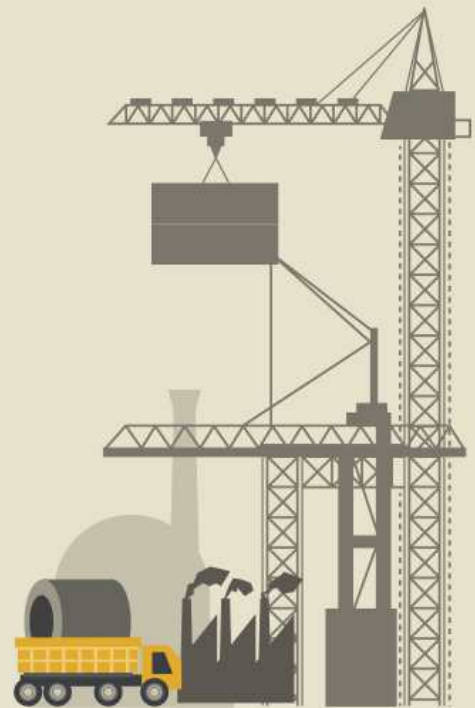
※ 석탄 수출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음

①북한산이 아닌 석탄이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고 수입국이 사전에 UN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당 석탄수입 대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무관함'을 통보한 경우

②오로지 민생목적의 거래이며 석탄수입 대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무관한 경우

※ 항공유 수입은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필수적인 경우라고 사전에 승인하면 예외적으로 공급이 허용되며 민항 여객기의 해외급유도 허용

〈주요 제재 품목의 수출추이〉



자료:UN comtrade

14년 전 북한 인권에 관한, 2016년 지금 이야기

재미 소설가 이혜리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할머니가 있는 풍경'을 발표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혜리 씨의 두 번째 한국 관련 작품 '아들이 있는 풍경'이 미국에서 첫 출간된 이후 무려 14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발행됐다. 6.25전쟁 중에 헤어진 아들을 50년 가까이 그리워하던 86세 할머니가 삼엄한 경비의 국경을 넘어 조우하는 과정을 그린 논픽션 에세이로, 작가는 외할머니와 함께 외삼촌 가족의 탈북을 직접 도왔고 이 경험을 토대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세계인들에게 전했다.



14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발간된 책, 출판 소감은?

외할머니, 그리고 사위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한국 분들에게 한국어로 알려지게 된 점, 특별하게 생각해요. 영어로 14년 전에 책이 준비됐을 때, 바로 영화제작이나 한국어 번역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국 내의 정치 변화,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출판이 보류됐어요. 그러다가 이 책을 따로 수업 교재로 사용하시던 한림대학교 노은미 교수님께서 출판사와 상의하고 번역을 맡아주셔서 이처럼 한국어로 발간될 수 있었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고 믿어요. 현재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제3국을 떠도는 탈북민에 대한 도움의 손길 역시 절실한데, 책이 이 시기에 출판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 책을 한 가족의 탈북기로 보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전쟁, 탈북에 관한 두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 큰아들 이용은 씨의 사진을 들고 있는
故백홍룡 할머니

외할머니는 전쟁 중 잃어버린 큰아들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하시다 1991년 북에 계신 외삼촌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면서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할머니가 있는 풍경)으로 출판했는데 주류 언론에 소개되는 등 화제가 되다 보니 책에 실명으로 거론된 외삼촌 가족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단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책인 '아들이 있는 풍경'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저는 어떻게든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북·중 국경지대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머물며 할머니와 아버지, 탈북가이드와 함께 외삼촌 가족의 탈북을 도왔어요. 20여 년이 흐른 지금, 생전에 남북통일을 보고 싶다고 하시던 할머니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지만, 외삼촌 가족들은 현재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계세요. 외삼촌인 애란 언니는 현재 북한인권 활동가로,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그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오게 할 거니까. 나는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너를 찾았으니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중략)...

“내 보는 앞에서 세상을 뜨고, 내가 잘 물어주었다면 그토록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죠. 아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몸은 건강한지 먹을 것은 있는지 모든 게 걱정이었어요. 자식 중 두 명이 함께 남았다면 서로 도우며 살 것이니 마음이 더 편했겠죠. 혼자 남겨졌다는 것이 내 마음을 더 괴롭혔어요.”

📖 50만 부 이상 판매,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높이다

책을 출판하기 전 ‘과연 미국의 독자들이 북한에 대해 알고 싶어할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출간이 되자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았고 이후 미국 주류 미디어 인터뷰와 대학 및 기관 강연을 통해 이산가족의 고통과 탈북민들의 현실을 알릴 수 있었어요.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이민법 관련 청문회에서 탈북민의 현실을 증언 했고요. 그때만 해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 책을 읽고도 북한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북한 주민의 삶은 철저히 장벽에 가려져 있었고 아시아에서 숨어지내는 탈북민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너무 비극적이어서 마치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요.

할머니와 관련된 두 작품은 이제 미국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육자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불행하게도, 책을 처음 쓸 때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용기를 잃지 않고 북한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꾸준한 강연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 LA시의회 선정 '용감한 시민상' 수상(1999년)

‘학철의 아내가 두 종류의 결정을 앞에 놓고 괴로워하는 동안, 수년에 걸쳐 형성돼온 정치적 신념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에게 속아 왔다는 깨달음에 이르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중략)... 창바지만 해도 그들이 떠나온 곳에 비하면 신천지였다. 그렇게 많은 음식, 많은 색깔들, 차들, 그리고 길에서 자유롭게 얘기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이제 막 두 살이 된 아들을 위하여 미래를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의 이야기



아직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남과 북에 존재해 있어요. ‘아들이 있는 풍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인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은 이 책이 가족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인 한국인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현재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많은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원만하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탈북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온 인간영웅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인들이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 연극과 TV 방영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것

남북한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할 수 있어요. 언 제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북한주민들은 굶주리거나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중국, 몽골 등에 숨어 지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여전히 송환의 공포 속에 살아갈 거고요. 그들을 도울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한 가족이, 한 사람이, 하나의 행동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그 험난한 여정을 보내신 것처럼요.

‘아들이 있는 풍경’을 출간한 후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책뿐 만 아니라 연극 등을 통해 메시지가 더 널리 전달되기를 기대해요. 현재 '머치 라이크 유(Much Like You)'라는 1인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고 6월에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8월에는 영국 에딘버그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미국 TV를 위한 데모작품도 제출했고요. 맨 처음 '할머니가 있는 풍경'이란 작품을 썼을 때는 북한에 계신 외삼촌 가족의 안전이 걱정돼 자괴감에 빠졌었지만 이번엔 달라요. 책 속 이야기가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남한은 물론 북한에도 전해져서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리.사진 / 기자회견〉

이혜리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4세 때, 미국으로 이민했다. UCLA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MTV, NBC, CBS 등에서 작가와 PD로 활동하던 중, 1996년 실화소설 '할머니가 있는 풍경'을 펴냈고 2002년 후속 이야기를 담은 '아들이 있는 풍경'을 출간했다. 현 서울예술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분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창작활동과 함께 탈북민 인권을 주제로 강연, 공연 등을 이어가고 있다.



남한 소외계층에 통일씨앗 심는 유니시드 통일봉사단



“받는 것에 익숙했던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직 젊잖아요.

남한청년들과 노력봉사를 하며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햇수로 3년 차, 매달 정기적으로 노숙인들에게 도시락 급식 나눔을 하고 지식이나 재능을 필요한 곳에 나누며,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유니시드 통일봉사단. 80% 이상이 탈북민으로 구성돼 있는 봉사단원들은 이제 노력봉사를 넘어 스스로 정기후원자를 자청,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있다.

5월 토크참가자



엄에스더(외국어대 4학년, 단장)

7년 전 탈북. 남한에 입국했을 때부터 개인인 봉사활동을 이어가다가 2014년 ‘유니시드 통일봉사단’을 결성, 현재 52명의 정회원, 30여 명의 협력봉사자, 일일 자원봉사 참가자들 함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경(○○대학교 2학년, 가명)

봉사단에서 배식봉사와 제3국 탈북민 지원업무를 담당. 2013년 남한으로 왔지만, 북한에 아직 어머니와 동생이 남아 있다. 하루빨리 해후할 날을 기대하며 학업과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모두 열심히 해내고 있다.



엄에밀리(경기대 1학년)

엄마와 함께 북송됐다가 2010년 남한에 정착한 대학 새내기. 재 탈북과 어머니의 암 치료 등을 위해 도와주시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니와 봉사활동에 동참.

유진범(목사)

탈북민들을 돕는 SNS ‘우리온’ 운영팀에서 활동하면서 주말에는 유니시드 봉사활동에 참가. 중국 방문 중 탈북민의 현실을 알게 됐고 이들의 남한정착과정을 지켜보면서 탈북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





문민영(충신대 신학대학원)

봉사단원은 아니지만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많은 신학생. 탈북민들과 봉사하며 소통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노숙인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 동참.

받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 펼쳐

엠에스더 : 유니시드 통일봉사단은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 나눔으로 소통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자'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매월 한 번씩 배식봉사와 서울역 노숙인 도시락 나눔활동을 하고, 또 다른 주에는 수공예나 영어, 컴퓨터를 교육하는 지식·문화공유 프로그램도 진행해요. 연중행사로 북한음식 교류, 시설아동 선물 전달, 쪽방촌 김치 및 연탄나눔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등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민에게는 가정마다 여유있는 생필품과 의류들을 접수받아 생필품이나 의류 등을 거의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e-행복한통일 : 남한 정착도 쉽지 않은 일인데, 소외계층을 돕게 된 계기가 뭔가요?

엠에스더 : 엄마와 여동생이 제 눈앞에서 복송됐고 북한에 있던 남동생마저 어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됐어요. 내 가족을 살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탈북했는데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고, 우울증을 알게 돼 삶을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를 격려해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남한에 온 지 7년간 거의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14년 유니시드를 만들어 다른 탈북친구들과 함께하게 됐고요.

김미정 : 유니시드를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엔 선뜻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학교 의무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나갔는데, 막상 해보니 북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북한과 중국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땐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은 가족들이 항상 걱정인데 여기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누군가 우리 가족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는 순간만큼은 다른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행복한 기분이 들고요.

엠에밀리 : 복송됐다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남한에 오게 됐는데, 엄마가 암 말기란 걸 알았어요. 많이 전이돼서 수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호전돼서 방사선치료를 받고 계세요. 항상 저는 "받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나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봉사할 때마다 뿌듯함과 성취감이 큰 것 같아요.

받는 '이 친구들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진심 통해

김미정 : 남한사람들은 노숙인 돕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심 기대했는데 막상 가보니 거친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술주정을 부리시거나 반찬 가짓수가 적다, 오징어 볶음이 질기다며 불평을 하시고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단지 표현방식이 서툴 뿐이라는 걸요. 이분들의 생활환경은 누구보다 열악하고, 마음과 몸이 다 힘든 사람들이예요. 그래도 굶는 사람들이 많은 북한 땅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어서시길 바래요.





엠에스더 : 빨갱이들이 주는 거 안 먹는다'는 말도 들었어요. 동료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됐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혹은 냄새가 난다고 그만둔 북한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나눔이 오래될수록 이분들의 마음 또한 열리고 있던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의무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해주신 분도 있고, 떡과 굴이 든 까만 비닐봉지를 가만히 손에 쥐여준 분도 계셨죠. 배식이 끝난 뒤 쓰레기를 함께 치워주거나 떼쓰는 아저씨들로부터 보호도 해주세요. 가진 것 없는 탈북민들이 와서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도 용기를 내서 삶에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유진범 : 주말 봉사 때마다 참여하곤 하는데, 탈북친구들이 노숙인을 위해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를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현장에 나와 보면 노숙인들이 정말 유니시드를 좋아하세요. '이번에 누구 결혼한다던데? 누구 안 왔네?'라며 관심을 보이시죠. 칭찬도 많이 하고요. 낮은 자리에서 북한음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걸 보면 정말 유니시드(통일을 위한 씨앗)가 심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Y 나눔에 동참하는 봉사단, 탈북민에 대한 편견 없애

문민영 : 오늘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왔는데, 비도 오고 처음이라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경험이었어요. 북한음식을 함께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 문화나 탈북민들의 생각을 알게 된 것 같고요. 말투가 좀 다르지만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와 크게 다른 느낌은 못 받았고 오히려 노숙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씨앗은 작지만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유니시드의 노력이 통일 후 어떤 열매로 맺어질지 기대가 돼요.



북한음식 인조고기밥▶

엠에스더 : 4명으로 시작했던 유니시드는 현재 동참자가 많아져 회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처음 북한음식 나눔 봉사를 계획했을 때, 공모전 상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곤 했지만 이전 십시일반 돈을 내는 친구들도 생겨났고요. 탈북친구들 옆에 아흔은 집에 돈을 보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나눔을 통해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는 걸 보면 큰 보람을 느껴요.

엠에밀리 :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니까 유니시드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아지고 동참하고 싶다는 제의도 많이 와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없앨 수 있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Y 장학재단 설립이 꿈, 남북청년 함께하는 통일문화 만들 것

e-행복한통일 : 유니시드의 앞으로의 계획, 봉사단원들의 꿈이 이야기해주세요.

엠에스더 : 남한에 왔을 때 한 시간 먼저 등교하고 학교 문 닫을 때 집에 오는 생활을 반복하며 열심히 공부했더니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 장학금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장학재단을 세우겠다는 꿈을 꾸는 것도 그때 부터였죠. 유니시드가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되려면 단원들의 정기후원만으로는 부족해요. 올해는 북한음식으로 수익을 창출해 꿈을 향한 발판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



교마다 유니시드 지부가 생긴다면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통일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혜미 : 저는 일단 북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보다 먼 장래에는 탈북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복송됐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 그 아픔을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Y '다름'이 아닌 '공통점' 찾아볼 때 통일 앞당겨져

엄에스디 : 정착이란 게 뭘까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남한 사람'화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의 가교가 되는 것이 진정한 탈북민의 정착이란 생각을 했죠. 우리 제2의 실향민이다 보니 이산가족세대를 공감할 수 있고, 부모님 세대와 비슷한 문화적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청년 중 한 사람인 거죠. 3세대와 공감할 수 있으니 통일이 됐을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생각을 했어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누며 소통하다 보면 친구가 되고, 친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다면 통일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미정 : 분계선만 없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쉽진 않더라고요. 북한주민들은 폐쇄된 사회에서 우울한 개구리처럼 지내왔지만 남한 사람들은 다양한 세계를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남한 분들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주면 통일도 빨라지고 화합이 잘 이뤄질 것 같아요.



▲ 지난 5월 5일 다문화아동센터 4곳, 82명의 아이들에게 학습품세트를 선물한 유니시드 통일봉사단

엄에밀리 : 지금처럼 남북정세가 안 좋을 땐 좀 불편한 시선이 느껴지는데, 똑같은 한국인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당연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범 : 남북한 주민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말이 대전이나 대구, 제주, 강원도에서 왔다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도록,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3년 전 중국에서 조선족 친구에게 한·중간 축구경기를 하면 누구 응원할 거냐고 물었는데 중국 보다는 '형제'인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는 말이 제겐 큰 울림이 됐어요. 아, 축구 경기를 보며 같은 마음으로 응원만 해도 한 민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이처럼 통일을 너무 거대담론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일상에서 한 민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통일이 그리 어렵진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민영 : 통일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통일로 인한 여러가지 장점들이 자신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같이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공감이 일어나는 것처럼 남북한 역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문화적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강남스타일 춤으로 세계가 하나 되는 것처럼 국경을 뛰어넘는 문화가 필요해요.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음악이나 공연, 영화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사진 / 기자회견〉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북한 헤어스타일

이 나 경 전문위원(통일교육개발연구원)

북한의 미용실은 조선노동당의 정책변화에 따라 변화를 많이 받는 문화공간이다. 1990년도에는 '자본주의 황색바람', '비사회주의 현상'이라면서 한국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을 북한 당국은 엄격히 통제해왔었다. 그때마다 미용실에서는 헤어모델 사진과는 무관하게 몇 가지 종류의 헤어스타일만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TV아나운서나 중국 배우들의 머리스타일 유행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머리모양을 잘하자'는 북한TV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헤어스타일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실제로 단정하지 않거나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등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닌 사람들은 규찰대 단속에 걸리곤 했다. 따라서 20대 여성들은 단발머리나 단정한 말총머리, 30대 이상은 짧은 파마머리 등이 주를 이뤘고, 아직도 소학생, 중학생, 대학생의 경우 표준 머리 스타일이 규정돼 있다. 오직 예술분야에만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헤어스타일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

대개 북한주민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은 북한TV에 많이 등장하는 아나운서 머리모양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다음으로 북한영화에서 만날 수 있는 여배우들의 머리모양이 유행을 이끌고 있다. 북한 '만수대 텔레비죤' 채널에서는 중국영화나 공연, 드라마 등이 가장 많이 상영되고 있고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쿠바 등의 외국 영화들이 상영되는데 그중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고 선전하는 중국 일부 배우들의 머리스타일이 유행을 타기도 했다.



▲ 북한 아나운서들의 헤어스타일



▲ 북한 잡지에 실린 여성 헤어스타일

최근에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자주 TV에 등장하면서 그녀의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퍼스트레이디 이설주는 북한 여성들의 패션을 선두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재일교포 출신의 여성들은 현지민들과 좀 차별화된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패션과 머리모양만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으며, 북한의 최신 헤어스타일을 일정 부분 대표하기도 한다. 또한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파마머리보다는 자연스런 생머리나 쌍태머리, 외태머리 등이 인기가 있는 편이다.

평양 창광 고급미용실 등 VIP 미용실 존재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머리를 해주는 미용실이 있지만, 보름달형, 구름형, 물결형, 포도형, 제비형, 갈매기형 등 정해진 모양의 서비스만 제공해주다 보니 점점 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북한 여성들은 개인 가정집에서 머리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기업소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내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예 집에서 미용업무만 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전에 북한에서 생산된 염색약들은 부작용이 심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외국계 염색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며, 북한의 일반 미용실에서는 주로 중국산 염색약을 사용한다. 반면 평양 창광원 미용실 등 고급미용실이나 개인미용실에서는 일본, 독일, 프랑스계 염색약을 쓰기도 하는데, 특히 평양 창광원의 경우, 특별한 손님에게 VIP 대우를 해주기도 한다.



▲ 북한 평양 창광원의 미용실

최근 북한에 거세게 부는 한류열풍은 머리모양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도 국가의 통제도 많이 완화되어 북한주민들은 현재 비교적 자유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편이다. 이렇듯 북한 사회에서 헤어스타일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고, 주민들 역시 유행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 등을 통해 북한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한류가 앞으로도 헤어스타일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사진. 연합뉴스>

결혼식 끝났는데 집에 가잔 애길 안 해요!



결혼의 계절 5월. 탈북민인 옥순(가명) 아주머니는 둘째 딸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남한에선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든다는데 어디서 하는 게 좋은지, 또 하객은 누구를 초대해야 하나'고 묻는다. 식당 예약부터 피로연, 신혼집 마련까지 아직 남한에서 결혼식을 치른 경험이 없다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년 탈북민 아주머니들의 '결혼 수다'를 소개한다.

결혼식도 남한은 빨리 빨리인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세 명의 중년 여성들이 직장 퇴근 후 옥순 아주머니네 집에 모여 담소를 나눴다. 가장 먼저 화제에 오른 건 딸 결혼식 이야기. 지금은 결혼 풍속도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누군가 결혼을 하면 온 동네가 들썩이던 기억이 있다. 전통방식으로 개인 집에서 혼례를 치르면 친척들은 쌀을 한 짐씩들 지고 와 창고에 넣어두고 사흘간 잔치집에 머물며 축하를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집 저집에서 그릇들을 빌리는 바람에 나중엔 주인 모를 그릇이 남기도 한단다.

"남한에서는 현금봉투 들고 가서, 결혼식 끝나면 점심 먹고 헤어지잖아요. 처음엔 친척끼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집에 가잔 말을 안 할까, 린색(인색)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것도 리해(이해)가 가요. 한국은 워낙 바쁘게 사니까요."

북한에선 축의금으로 왜 쌀을 가져가는지 묻자 옥순 아주머니는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 미공급 시기엔 엄마 집에 가더라도 배낭에 식량을 두둑이 넣고 가야 했다"며, 가까운 친척일 경우에는 쌀을 한 말(8kg)씩 지고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한에서 결혼식장에 다녀왔던 경험들도 이야기 했다. 양순(가명) 아주머니는 예식장 뷔페에 갔을 때 음식이 많은데도 남이 다 가져갈까 봐 자신도 모르게 접시 가득 담아오곤 했던 기억이 난다며 웃었다. 이전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가져오는 습관이 들었지만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후배들이 역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 본다고 했다. 반면 송남(가명) 아주머니는 처음 TV에서 남한 상차림을 봤을 때, 접시마다 음식이 한 것 가락씩밖에 담겨있지 않은 게 이상했단다. '중국사람들 말로는 남한이 잘산다는데 왜 이렇게 음식이 초라하고 불쌍할까' 의문이 들었다고.

"중국은 밥을 고봉으로 푸는데 남한은 밥을 너무 조금씩 담아요. 막 왔을 땐 두 공기도 성에 차지 않아서 세 공기씩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공기 먹기도 힘들죠. 적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잖아요."



좀 '웃픈(?)' 이야기도 있었다. 예식장이 20층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식이 끝나고 나왔을 때 '만원'이라는 빨간색 글씨를 보고 그냥 계단으로 걸어 내려왔다는 것. '만원'이란 말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가득 찼으니 기다렸다가 타라'는 뜻인 줄 모르고, '이 엘리

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면 돈 만 원을 내시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유료면 유료라고 올라가기 전에 알려줘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데 무슨 돈을 만 원씩이나 받느냐며 투덜거렸죠. 그날따라 하필 구두를 신고 갔는데... 결국 계단으로 20층을 걸어내려 왔단니까요."

평양이 좋고 서울이 마냥 좋은 이유?

옥순 아주머니에게 둘째 딸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할 건지 물었더니, 경기도권의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봐둔 게 있다고 했다. 지금이야 지방도 괜찮지만, 처음 남한에 왔을 때만 해도 거주지를 서울로 배정받길 고집했다는 옥순 아주머니. 알고 보니 북한에서 외진 지방은 '추방자들이 사는 곳'이란 편견이 있어, 모두 수도권(평양)을 선호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보니 서울이나 지방도시나 중년 여성들이 소일거리 하면서 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순 아주머니는 '말이 이빠서 서울이 좋다'고도 했다. 북한에서 살 때는 억양이 센 지방사투리보다 평양 말이 좋아서 TV를 보며 따라하곤 했다는 양순 아주머니. 그러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 말투가 '간질간질 애교스럽고 이빠서' 인상적이었다고.

그러자 승남 아주머니는 대뜸 "서울말이 아무리 이빠도 짐승들에게까지 존경어를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묻는다. 명태는 '대가리'라고 해야 하는데 '명태 머리'라고 존중해 주고, 식당 간판에도 '소머리국밥집'라고 써져 있는 게 이상하단다(원래 남한에서도 표준어는 대가리가 맞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양순 아주머니, 얼마 전 겪은 일이라며 식당 관련 이야기길 들려줬다.



"근데 말이지요. 내가 얼마 전에 부대찌개라고 써져있는 식당엘 들어갔거든요. 북한은 군대 공급이 좋아서 군인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군관들이 먹는 덴가 싶어서 톱 들어갔는데 어묵에 소시지에... 받아놓고 보니까 야... 이게 왜 부대찌개라고 하는 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부대찌개라는 음식 이름의 유래에 대해 말해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 어쨌든 부대라는 말이 그 부대인 건 맞구나?"하며 재밌다는 듯 웃는다.

"갈매기살도 그래요. 갈매기살 하니까 아... 바다갈매기를 먹나? 기름도 없는 폐살(살코기)이겠지 싶어서 영 먹어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돼지고기를 주더라 말이지요."

이 말에 승남 아주머니는 "나도 갈매기를 잡은 고긴 줄 알고 아... 갈매기는 이쁜데, 갈매기는 잡지 말지, 불쌍하다 이래 생각했지요"라며 두 아주머니는 한참을 큰소리로 웃었다.

축의금만 8년째, 남한에 자식이 없으니 받진 못해요

한편 '축의금만 8년째'라는 양순 아주머니는 딸 결혼을 앞둔 옥순 아주머니가 마냥 부럽다. 양순 아주머니의 아들은 몇 해 전 북한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작년엔 아이도 낳았다고 한다.

"아들이 10살 때 저 혼자 북한을 나왔다가 16살 때 연락해서 남한에 오라고 했더니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사진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얼마 전엔 아들이 그러대요. 그때 나올 걸 후회가 된다고요. 북한에 한국드라마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은 거겠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우울증이 온 적도 있다는 양순 아주머니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슬렀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우울증이 왔을 땐 아일 데리고 밖에 다니는 엄마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차가 빵빵거리는 것도 못 듣고 가만히 서서 넋 놓고 봤어요. 신경과에도 두 번이나 갔었고요. 그래도 아들이 장가가서 그런대로 살고 있다고 하니 마음은 편하네요."



<글. 기자희>

회령의 백살구 시큼지도 않고 맛있어요!

옥순 아주머니가 떠나온 회령은 북쪽에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지방과 마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벚꽃보다 이쁘다'는 백살구 꽃이 오산덕 언덕은 물론 온 시가지에 피어 강한 향기를 내뿜는다고 한다. 회령군 과수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백살구는 일반 살구와 달리 과육에 흰빛이 돌며 크기도 훨씬 크다.

"언덕에 오르면 공기에 백살구 꽃향기가 묻어와요. 백살구는 시큼지도 않고 달달 해서 '회령 백살구'하면 '어머니 고향의 특산물'이라며 다들 알아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백살구 나무를 다른 고장에 심으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오직 회령에만 백살구가 나는 거죠.(기록에 따르면 백살구는 온성과 경원, 청진, 무산 등 함경북도 일대는 물론 창성과 벽동 등 서해안 내륙지방에도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배의 경우 명간이 유명하지만 회령에서는 다섯 가지의 배를 맛볼 수 있단다.

껍질이 얇고 푸른 청배, 단맛이 강한 명간배, 돌배(깨끼오리), 조롱박 모양의 박배 등이다. 덜 여문 새파란 돌배는 따다가 삶아서 식카린을 넣어 재워먹기도 하고 껍질이 두꺼운 박배는 김치움에 저장했다가 겨울에 설탕물에 동동 띄워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한다.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청년통일문화, 우리들이 만들어갑니다!

대구지역회의 통일 청년아카데미



대구지역회의가 주관한 '2016년 대구지역 상반기 자문위원 연수' 통일 청년아카데미 1차 강연이 있던 지난 4월 26일 수성대학교 본관. 김해룡 대구지역회의 청년분과위원장과 8개 구군 청년분과위원장들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강연장에 모여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이어 청년·일반 자문위원들이 속속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팔에 깁스를 하고도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박규하 수석부의장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중간고사나 수업을 막 마친 통일동아리학생 30여 명도 강연을 듣기 위해 서둘러 달려왔다.

▶ '대구 청년 다모여라' 통일 청년아카데미 참여열기 활발

대구지역회의는 통일정책과 북한체제, 북핵문제, 통일외교, 청년 통일공감 등 5개 주제를 가지고 총 5회에 걸쳐 화요일마다 통일 청년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초청강연을 통해 청년들의 통일지식을 넓히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강의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흥미와 관심을 높였다. 아울러 통일을 매개로 청년·일반 자문위원과 통일동아리 대학생들 간 상호 소통하는 자리도 함께 만들었다.

박규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위원들과 통일동아리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질 큰 기둥이므로 통일에 의지를 갖고 함께 통일담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전 국민과 세계인들이 손잡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고 평화통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서 선진강국 건설에 다 같이 동참하자"고 말했다.



▲ 박규하 부의장





이정태 경북대 교수, 통일 필요성 역설



▲ 이정태 경북대 교수

청년 아카데미 첫 번째 강연은 이정태 경북대 교수가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 한국의 통일정책과 동북아'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정태 교수는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정세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명하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 본'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통일이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왜 통일이 왜 필요한지'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경제패러다임과 개발협력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통일을 통해 경제패러다임을 주도하고 한반도 물류기지화, 세계인을 위한 공통 문화 여가지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군별 2030 청년자문위원들 소개, 소통의 장 마련

강연이 끝난 후에는 자문위원 및 통일동아리 학생들간 친목을 위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활동 각오를 다졌다. 김형수 2030청년자문위원 회장은 "청년 자문위원들이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다보니 맡은 일이 많아 자주 모이기 어렵지만,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지역회의 김해룡 청년분과위원장의 소개로 각 구·군별 청년위원 소개가 있었다. 자문위원들은 모두 함께 나와 스스로를 소개하며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실향민 대표를 맡고 있는 박철 자문위원은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실향민들은 가슴이 철렁하다"며 "청년들의 힘으로 반드시 통일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청년아카데미의 '진정한 주역'인 통일동아리 학생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앞으로 많은 공부와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는 당부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기사, 사진 / 기자회견〉





열혈통일청년들을 만나다!

통일을 이끌어 갈 대구지역 청년자문위원

올해는 청년 기획사업인 '통일준비 한마음 청년 통일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대구 청년분과위원회는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각구별로 출전한 청년 댄스·음악 공연팀의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통일문화 조성, 통일공감대 확산에 보탬이 보고자 합니다. 통일에 한발 다가서는 대구청년위원회가 되겠습니다.(김해룡 청년분과위원장)

통일은 '참여와 전파'에서 시작됩니다. 통일의 필요성이나 이점들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보다 알기 쉽게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장영철 북구 청년분과위원장)

대학생과 청년들이 보다 폭넓게 통일지식을 쌓고 통일인식을 높여야 통일을 준비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뭘 준비해야 할지 배우고 부딪혀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이번 아카데미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공영욱 서구 청년분과위원장)



대구지역 청년자문위원

'원코리아 통일동아리'는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로 김기만 교수님(대구지역회의 간사)의 지도 하에 공부나 회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회장 김재석). 평소 통일문제나 주변국 외교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청년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됐어요. 앞으로 탈북민 가족분들을 찾아 뵙고 봉사활동도 할 계획입니다(손진한). 강연을 들으면서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통일이 단지 먼 미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통일되면 군대 안가나요? 사실 저 다음 달 입대합니다. π.π (김상엽)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대구지역 통일동아리



대구경북지역 연합통일동아리 어울림 회장 송민찬(경북대)입니다. 통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학생, 20대라고 생각해요.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할 시기인데 청년아카데미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아직 동아리를 시작하지 얼마 앞했지만 앞으로 대구지역 학생들에게 통일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구지역 통일동아리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지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베트남 평화통일포럼 개최, 북한 비핵화 위한 협력 촉구



민주평통은 4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2016 한·베트남 평화통일포럼'을 개최, '베트남 통일 이후 민족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통일의 해법'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배경호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여전히 정치, 경제,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베트남의 대북제재 이행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포럼에는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강동완 동아대 교수, 고성준 제주대 교수, 이영중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김중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등이 한국 측 전문가로 참여했으며, 베트남 측에서도 부이녓 광(BUI NHẬT QUANG) 중앙당 예결위원 겸 사회과학한림원 부원장을 비롯해 팜쥬이득(Pham Duy Ehic) 호치민 국립정치학원 부총장, 쩌광민(Trần Quang Minh) 동북아연구소장, 레딘찐(Lê

Đình Chính) 하노이국립대 부교수, 딘광하이(Dinh Quang Hai) 역사연구원 소장, 팜홍타이(Phạm Hồng Thái) 동북아연구소 부소장, 레반상(LÊ VĂN SANG) 아시아태평양 경제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제16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성료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회장 김정치)는 4월 24일 '제16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포항시민 등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도와 영일대해수욕장을 잇는 해안선을 따라 열린 이번 마라톤대회는 '평화통일과 선진강국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으며,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결과, 남녀 하프코스 우승은 장성연 씨와 이정숙 씨가 차지했다.

중동지역 담맘 및 리야드, 통일골든벨 예선 열어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사우디아라비아지회(지회장 박형규)는 4월 9일 알코바 모벵픽 호텔에서 담맘 및 동부지역 분회 '2016년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해외 거주 한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통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와 같이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대회 중간, 학부모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돌발 게임으로 패자 부활전을 실시하는 등 참가자 모두가 통일상식을 즐겁게 알아나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우디아라비아지회는 4월 29일 리야드 지역에서도 예선전을 치렀으며 5월 7일에는 젯다지역 예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평통, 인권법제위원회 '북한인권전략회의' 개최



민주평통 인권법제위원회(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4월 2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북한인권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디펜스포럼재단'과 '북한자유연합(NKFC)'을 이끌고 있는 수잔 솔티 대표를 비롯,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온 15개 관련 단체 대표가 참가했으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NGO간 효과적인 역할분담 및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환영사에서 "만·관 모두 힘을 모아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외부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입시켜 통일을 앞당기자"고 당부했으며, 제성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착실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일본 도쿄, 오사카 등에서 통일강연회 열어



민주평통은 4월 26일과 27일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시대! 재일동포의 힘으로'를 주제로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일본 동포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통일강연회에는 많은 자문위원들과 동포대표가 참여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강연을 맡은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구마모토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동포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수많은 활동을 통해 한·일 간의 가교역할을 해 준데 대해 격려한 뒤,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배경, 국제사회 대북제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유래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 정부의 결단과 외교적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6차 운영위원회 및 4차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개최





민주평통은 4월 18일 제13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에 대한 심의했다. 또한 3월 30일에는 10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소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획조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분기 정책건의 대주제를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이 2분기까지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핵으로 유발된 안보위기를 국민단합으로 극복해 통일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기획조정분과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민주평통 9개 분과위원회는 4~8일까지 각각 소위원회를 개최해 분과별 건의주제 등 후속 논의를 진행했으며, 5월 3~13일까지 분과별 정책건의안을 마련한 뒤 오는 6월 중순경 의장인 대통령에게 정책건의을 보고할 예정이다.

통일시대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등



▲ 서울 송파구협의회



▲ 인천 부평구협의회



▼ 서울 금천구협의회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윤종윤)는 3월 23일 송파구청에서 '제61차 송파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으며, 인천 부평구협의회(회장 손광천)도 이날 부평구청에서 대행기관장, 지역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들과 함께 통일좌담회를 진행했다.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30일 관악농협에서 자문위원 및 주부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 관악농협 주부대학 개강식'을 열었다.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 강원지역회의



▲ 강원 홍천군협의회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김길성) 주관으로 4월 4일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텔에서 '여성 통일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강원지역회의 여성위원회(부위원장 박용성, 위원장 김숙영)는 15일 18개 시·군 여성자문위원들과 함께 강원도청에서 '여성통일리더 양성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했다.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19일 홍천읍사무소에서 대행기관장과 교육청 관계자, 군민들과 함께 통일리더 양성을 위한 '홍천통일대학'개강식을 열었다.





▲ 경남 김해시협의회



▲ 대구지역회의



▲ 서울 은평구협의회

경남 김해시협의회(회장 안병석)는 19일 김해농협에서 제20기 주부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 아카데미'를 실시했고,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이날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통일 공감대 형성 방안'을 주제로 '제26차 대구평화통일포럼'을 열었으며, 서울 은평구협의회(회장 전우대)는 '기독교 은평교구협의회와 함께 하는 2016 통일좌담회'를 개최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충남 계룡시협의회 ▶



▲ 경기 안양시협의회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3월 25일 영석고등학교에서 '2016년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열었으며,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는 28일 용남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 및 통일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2016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다. 경기 안양시협의회(회장 이상호)는 25일 양명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강화도 평화전망대, 전동사 일대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대전 중구협의회



▲ 전남 보성군협의회

대전 유성구협의회 ▶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25~26일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 유스호텔에서 '2016 청소년 나라사랑 통일리더십 캠프'를 열었고, 전남 보성군협의회(회장 김길두)는 29~30일 보성여자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9차 청소년 통일영원 현장견학'을 다녀왔으며,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김승수)는 4월 1~2일 속리산유스타운 수련원에서 대전용산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2016 청소년 통일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 전남 무안군협의회



▲ 경기 부천시협의회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는 6일 무안 백제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통일동아리를 구성하고 청소년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으며,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청년위원회(위원장 권우경)주관으로 6일 부천시 의회에서 청년 대학생 통일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



▲ 충남 서천군협의회



제주지역회의 ▶

충남 서천군협의회(회장 홍순석)는 7일 장항중학교와 한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통일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으며, 제주지역회의 청년위원회(부의장 김순택, 위원장 김치용)는 8일 제주대학교 통일동아리 '好·Peace', 제주한라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백' 학생 및 지도교수 등과 함께 '2016 제주지역 대학생 통일동아리 출범식'을 열었다.



▲ 충북 보은군협의회



▲ 전남 영광군협의회



▲ 경북 칠곡군협의회

충북 보은군협의회(회장 이남수)는 8일 보은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6년 중·고등생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14~15일 해룡중학교 임원 학생들과 함께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청소년 나라사랑캠프'를 열었다. 또한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16일 통일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주한미군 캠프캐를 6병기대대 장병들과 함께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찾아 한국전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남 밀양시협의회



경기 평택시협의회 ▶



▲ 강원 속초시협의회



▼ 전남 구례군협의회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윤정일)는 통일리더 육성을 위해 18일 밀성여자중학교 강당에서 '2016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경기 평택시협의회(회장 유승익)도 이날 송탄제일고등학교에서 '2016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안보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3월 31일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강원도 권역대회 참가를 위해 속초여자고등학교에서 1차 예선대회를 실시했으며, 4월 21일에는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가 2016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대회 필기시험을 치렀다.





▲ 서울 중랑구협의회



▲ 서울 노원구협의회



인천 서구협의회 ▶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3월 27일 탈북민 멘티 가족들과 함께 가운데 '통일공감 멘티통일맛이 리셉션'을 개최했고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해두)는 30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관내 모범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4차 민주평통이 함께하는 장학나눔 마추보기'행사를 열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4월 15일 서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서부경찰서 및 법조인 등을 초청해 '제4차 통일준비 한마음 멘토링'을 진행했다.

▼ 전북 전주시협의회



▲ 서울 중구협의회

▼ 경기 광명시협의회



▲ 대구 달성군협의회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16일 전주한옥 초코파이 공장에서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가 함께하는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으며,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윤순갑)는 관내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15~16일 강원도 일대로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서울 중구협의회(회장 양우진)는 16일 중앙클리닉 건강검진센터에서 '2016년 먼저 다가가는 통일: 탈북민의료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는 17일 현풍향교에서 '북한이탈주민 합동 전통 혼례식'을 치렀다.



통일문화 확산

▼ 부산 부산진구협의회



▼ 충북지역회의



▲ 대전 서구협의회

부산 부산진구협의회(회장 백옥자)는 3월 21일 여성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주관으로 부산진구청에서 지역 여성 리더와 지역 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통일 수다방'을 열었으며,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24~25일 부산 UN공원과 거제 포로수용소 일대에서 '충북지역 간부위원 통일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26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6회 통일기원 한마음 산행'을 실시했다.



▲ 경기 안산시협의회



▲ 경기 여주시협의회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29일 통일대학 제11기 교육생과 함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등에서 '제11기 민주평화통일지도자과정 안보견학'을 실시했으며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현)는 31일 관내 중·고교 교사, 사회단체장 등과 함께 경기도 파주 일대로 통일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 서울 강북구협의회



▲ 전남 곡성군협의회



▼ 전남 목포시협의회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는 4·19혁명 제56주년을 기념해 4월 8일 국립4·19민주묘지와 순국선열 묘지를 참배했다. 전남 곡성군협의회(회장 김판준)는 9~10일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통일현장교육을 다녀왔으며,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승하)는 9~10일 목포 유달산 꽃축제 기간 동안 목포유달예술인촌에서 '북한문화의 이해와 음식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 경북 청도군협의회



▲ 강원 고성군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경북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는 15일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에서 군민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평양 백두 한라예술단을 초청, 특별공연을 개최했다. 강원 고성군협의회(회장 황병규)는 16일 송지호 일원에서 '제 12회 2016 민주평통 평화통일염원 걷기행사'를 실시했으며,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도 이날 거제 내도에서 '2016년 통일염원 한마음 걷기대회'를 열었다.



▼ 충남 홍성군협의회





▲ 서울 용산구협의회



서울 용산구협의회(회장 장영철)는 18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과 함께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견학했으며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19일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봉사활동

▼ 강원 횡성군협의회



▲ 경남 함양군협의회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웅)는 3월 24일 전천교 주변 하천 및 산책로에서 '2016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으며,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명재)는 29일 청년, 여성분과 위원회 주관으로 상림공원일대에서 '한마음!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 강원 정선군협의회



▼ 전남 광양시협의회



▲ 경기 이천시협의회

강원 정선군협의회(회장 심웅중)는 4월 1~3일 동강 할미꽃 축제장에서 청소년 통일지킴이 봉사단 학생들과 지역 봉사활동 및 통일안보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정용관)는 2일 광양금호동 벚꽃 문화축제를 맞이해 정부 3.0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제 71회 식목일을 맞아 5일 부발읍 아마리산 일대에서 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시민, 공무원 등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으며,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도 이날 5일 효성산 일대에서 '산불예방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 인천 계양구협의회



▼ 제주 제주시협의회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는 7일 관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11번째 무료 배식 봉사를 실시했으며,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고향심)는 16일 관내 장애인 요양시설을 방문해 대청소 및 식사봉사 등 5년째 행복나눔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유채형)는 20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여성분과(위원장 이옥희)와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신순옥) 주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점심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버클리대 북한인권 개선 활동 단체인 LiNK와 함께 4월 4일 버클리대학교에서 북한인권법 관련 강연을 개최했다. 학생, NGO 관계자,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강연을 맡은 이정훈 인권대사는 "3대 독재정권-인권 유린-핵개발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고 북한의 인권유린을 더는 허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자문위원들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미주지역회의는 3월 31일~4월 3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2016 미주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기철 미주부회장과 김현명 LA 총영사를 비롯해 미주전역 17개, 남미 3개 지역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하반기 민주평통 해외업무계획 보고와 미주지역회의의 관련 의견을 수렴했으며, 북한 핵 도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통일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할 박근혜 대통령에게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각국 정상들이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 국제평화 질서에 순응할 것을 촉구했다.



▲ 상하이협의회



▲ 평저우협의회



중국 상하이협의회(회장 이상철)와 광저우협의회(회장 허남세)는 3월 23일과 24일 르네상스호텔 및 광저우호텔에서 각각 배정호 사무처장 초청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화동정법대, 상해교통대, 화동사범대, 중산대, 심천대, 광둥외대 등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선양협의회도 25일 다롄 한국국제학교에서 다롄한국인회 임원진 및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학생, 한중친선협회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前 국토통일원장관 및 前 체육부장관) 초청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영남)는 4월 9일 칭다오지역 청소년들의 통일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칭다오 청소년 통일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청도한국국제학교에서 진행했다. 칭다오지역은 물론 위해, 연태 지역의 학생들까지 약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북녘 친구들에게 편지쓰기'와 통일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가 진행됐다.



미국 애틀랜타협의회(회장 조성혁)는 4월 8~9일 이성운 교수(터프츠대)를 초청해 '북한 대외전략 및 한미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돌루스 서라벌과 조지아텍에서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개최했다. 이성운 교수는 "북한이 60년대 중반 남한보다 산업화를 먼저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국가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인권유린 때문이라며, 통일은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2천 만 북한 주민이 자유로워지는 제2의 해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관심을 갖고 강력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협의회(회장 최진학)는 3월 23일 오타와 연방의회 별관에서 공직자, 학계인사, 한인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디 스그로 의원(전 이민장관)과 연아 마틴 상원의원, 제이슨 케니 의원(전 이민 및 국방장관) 등이 참가했으며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실상 증언 및 대북정보 유입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데이비드 슬린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행사

에서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와 민간차원의 대북정보유입 활동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협의회는 캐나다 사회와 주류 정치권을 대상으로 17과 19일에도 강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봄, 그 설레는 산책

충남 태안

청개구리 심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다. 아침마다 호들갑스럽게 기상청 날씨 정보를 들락거리며, 새삼스레 산책을 갈망하게 된다. 이토록 선명한 햇살아래 자유롭게 거닐 수 없다니... 이대로라면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찬란해야 할 이 봄날의 기억마저 얼룩져버릴 것 같아, 제대로 된 산책길을 찾아나섰다.

타박타박 모래 고운 사막과 그늘 깊은 숲을 지나 부끄럼 없이 속살을 드러낸 바다에 다다르자, 그제야 턱 밑까지 차올랐던 숨을 크게 내쉬게 된다. 여유만 있다면 서해의 물결 위 붉은 해가 저무는 풍광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으니, 이보다 완벽한 '봄 산책'이 또 있을까. 얼렁뚱땅 또 다시 이 짧은 계절이 지나가버리기 전 한번쯤 제대로 걷고 싶어 충남 태안으로 향했다.

바다와 숲 그리고 그 사막, '신두리 해안사구'

무거워진 몸을 주체하지 못해 잔뜩 내려앉은 하늘 아래, 바다를 등진 사막이 있다. 봄 햇살에 적당히 데워진 바람이 불어올 때면 반짝이는 고운 모래들이 파도처럼 흘러내리는 야트막한 사막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구(砂丘)인 신두리 해안사구다. 무려 빙하기 이후부터 바람에 의해 침식과 퇴적을 반복해 만들어진 사구는 사구식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자, 국내 해안사구의 모든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다.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없다 해도, 바다 뒤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사막과 사막 앞으로 펼쳐진 숲의 전경 앞에서 쉬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이른 새벽, 3km의 해변에 해무가 내려앉은 날이면 하늘과 바다, 모래사막과 숲의 경계가 모호하게 지워진다. 문득 세상 속 홀로 남은 듯 적막함에 어깨를 움츠리기도 잠시, 바람이 스쳐가는 파도와 나뭇잎의 부대낌에 귀를 기울이면 지워진 경계만큼 마음 역시 자유로워진다. 또 해질녘 풍광 또한 일품이라 아침 잠이 많은 이들이라면 오히려 한껏 게으름을 피워도 좋다.

다만, 중요한 자연의 보고인 만큼 직접 사구를 오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주변의 잘 정돈된 나무테크를 이용하거나 해변 쪽 사구를 구경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다. 그리고 이 봄이 지나 계절이 더 무르익어 가면 얼마 안 가 푸른 풀밭으로 뒤덮인 사구 역시 만날 수 있다.

봄날 산책을 즐기는 가장 완벽한 방법, '천리포수목원'

이름난 해변이 많은 지역답게 태안 하면 서해 특유의 광활한 갯벌과 잘 정돈된 바다풍광을 떠올리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끼자끼한 걷기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바다를 둘러싼 숲과 그 숲길에서 만난 꽃송이들이다.

기어이 제 흔적을 남긴 사막의 고운 모래알 몇 알을 옷자락에 묻힌 채 이번엔 질푸른 나무 사이를 거닌다. 태생은 사람의 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성껏 가꿔진 수목원의 나무와 꽃들은 어느새 가장 이 땅과 어울리는 생김새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천리포수목원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수목원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중 한 곳이다.



봄날, 만개한 꽃송이가 겹겹이 꽃잎을 포갠 때, 버드나무가 연못 위 긴 나뭇가지를 떨궈낼 때 수목원의 풍경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사실 430개 품종의 목련이 이름난 곳이지만, 목련이 진 자리는 청초한 수선화와 수목의 생기가 대신하기에 봄날이라면 언제고 찾아도 후회가 없다. 사실 식물자원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술적인 목적이 더 큰 곳이다 보니 일반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적이다. 하지만, 지역의 풍광에 반해 평생을 이 땅의 식물과 꽃을 키우는데 헌신했다는 설립자의 마음이 십분 이해될 만큼, 바다를 끼고 이뤄진 수목원의 풍광은 그 자체로도 황홀하다. 특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놓인 벤치에 앉아 멀리 천리포해수욕장을 보고 있다면 가능한 이 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남몰래 기도하게 된다.

심장이 간지러운 날, '꽃지해수욕장'과 '갈음해수욕장'

사실 태안의 해변에 대한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 까닭은 그저 흔하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의 번덕스러움을 탓해야 할 문제지, 율망출망 이어진 크고 작은 해변들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이맘때 태안의 바다는 인파에 시달리지 않고 너른 바다를 느긋하게 조망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그중에서도 꽃지해수욕장 초입은 더욱 특별하다.



선명한 원색의 유채꽃무리가 넘실대는 바다는 그 자체로 봄을 상징한다. 굵은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지금 서있는 이 계절이 봄이란 사실에 고단한 일상을 핑계로 딱딱하게 굳어가던 심장마저 말랑말랑 설레기 시작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꽃무리는 단순히 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두 손을 꼭 잡은 노부부가 몇십 년 전 어느 봄날을 추억하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얼굴에도 열일곱 소녀 같은 미소가 번진다. 그렇게 이 바다 앞 꽃밭은 또 다른 이름의 추억이 된다.



조금 더 낭만적인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근흥면 일대의 갈음이해수욕장 주변으로 향해본다. 구름이 주홍빛으로 물들어가는 시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속 주인공들이 해질 무렵 허밍에 맞춰 왈츠를 켜던 울창한 숲수와 모래가 굵기로 유명한 백사장으로 걷다 보면 자꾸만 심장이 간지러워진다.



보일 듯 말 듯 그 봄, '간월암'

간질간질한 심장을 토닥토닥 다독이며, 이번엔 좀 더 바다 가까이 다가가 본다. 일몰이 아름답기로는 손꼽힌다는 간월도 물때에 따라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밀물이 차오르면 그대로 작은 섬이 되지만, 물이 빠지면 바닷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간월도에 위치한 간월암은 조선 시대 무학대사가 수행했다는 작은 암자로 긴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조금은 투박한 모습이지만, 주변으로 흐드러진 유채꽃과 뜨거운 태양을 골뎠 삼켜내는 낙조의 풍광만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사실 행정구역상 인접 지역인 서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태안의 해변 길을 달리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한번쯤 함께 둘러볼 만하다.



낯선 이름, 친숙한 맛 그래서 더 맛있는 '계국지'

싱싱한 해산물을 푹 끓여 낸 국물의 첫맛은 진하고 달큰하며 김치의 칼칼함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 생각을 간절하게 만든다. 이름조차 생소한 계국지는 서해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꽃게에 걸절이 김치를 더해 끓여내는 충남 지역의 향토음식이다. 낯선 이름과 달리 맛은 친숙하고 정겨워 금세 밥 한 공기를 푹딱 비운다. 여기에 매콤한 양념게장과 짭짤한 간장게장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든든하게 배까지 채우자 이 봄이 조금 더 행



복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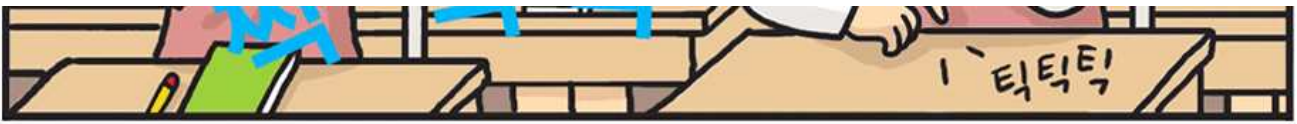


<글. 권혜리/사진. 김규성>

선생님! 전 근사하지 않다고요!!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아니라구!!
나 안 근사해!
근사하지 않다고요!!

가짜말

* 근사하다=가깝다(북한말) ↔ 근사하다=멋지다(남한말)



남새는 '채소'를 뜻하는 북한말로,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남새에는 비타민이 풍부하니, 소가 남새를 먹고 힘을 쓰듯이 남새밥을 먹고 소처럼 일하자'며 남새밥이 적극 권장되었다. 북한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대용식으로 쓰이던 요리지만, 육류 위주의 식단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남한 사람들에게 '남새밥'은 훌륭한 영양식이 될 수 있다. 풍부한 영양소가 듬뿍 담겨있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남새밥을 만들어보자.

요리재료

쌀 2컵, 물 2컵, 밤 5알, 당근 1/3개, 표고버섯 4개, 대추 5개, 단호박 50g, 옥수수 30g, 완두콩 30g



요리방법



1 쌀과 완두콩은 씻어서 미리 불려놓는다.



2 밤은 껍데기를 깬 뒤 먹기 좋게 잘라준다.



3

4



3 당근,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씻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4 씨를 제거한 단호박을 사각 썰기로 잘라준다.



5 옥수수는 잘 씻은 뒤 알을 떼어 내 쌀과 섞어 준비한다.



6 밥솥에 불린 쌀을 먼저 담고, 준비한 채소와 대추를 올린 뒤 밥을 지으면 완성.

콩비지와 무채 배추로 만드는 북한식 남새밥

식량난이 심각하던 시기,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용식품 개발과 보급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절식 건강법'에 대한 순회공연을 벌이면서 식용이 가능한 '풀뿌리 채취운동'을 전개했고, 부식물을 이용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영화를 만들어 이를 각 공장, 기업소, 단체별로 상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의 소비를 억제하면서 식량 부족을 타개하고자 대대적으로 보급했던 것이 바로 남새밥과 김치밥이다. 북한식 남새밥은 옥수수, 밀 등 잡곡에 콩비지, 무채, 배추 등의 채소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짓는다.



〈글.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통일나무를 심어봐요 이벤트 당선작



통일전망대에 연리지를 심고 싶어요

아방이

저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통일전망대에 연리지를 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 그리고 이산 가족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그 나무, 마침내 하나가 될 한반도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국내에 자라고 있는 연리지를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옮겨다가 통일전망대에 심고 싶습니다.



임진각에 '일치단결' 꽃말 지닌 보리꽃을...

포테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보리꽃을 심고 꽃놀이를 하고 싶어요. 이곳은 남북한 분단의 상징이었던 철도가 끊긴 지점입니다. 보리꽃의 꽃말은 '일치단결'이라 하지요. 분단의 아픔을 지닌 평화누리공원을 보리꽃으로 살포시 감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백합'을 통일 기원하며 심을래요!

서현

백합을 심고 싶습니다. 백합의 꽃말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긴 시간 분단되어 있었지만 한민족간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통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역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을 극복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백합을 심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 가족과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위로해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6만6천명 이산가족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고향에 남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죠.
같은 한반도, 가까운 거리에 보고 싶은 가족들이 있는데도
만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위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가족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적어주세요.

- 응모기간 : 2016. 5. 9. ~ 5. 25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2명
-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2만 원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댓글 이벤트도 있어요!

각 기사 하단에 아래 그림처럼 댓글을 남기는 곳이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매월 15분을 선정해 4천원 상당의 커피교환권을 드립니다.

댓글과 만족도 기사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입력



어버이날, 북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은 남한에서 '가정의 달'로 불립니다.
혹시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님, 자녀, 친지,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이 분들께 편지를 띄워주세요.



- **참여대상** : 북한에 가족·친지들이 계신 모든 분
- **응모기간** : 2016. 5. 9. ~ 5. 25.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 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2명
-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2만 원 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따뜻한 봄 햇살아래 맛보는 좋은 음식은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안겨주죠.
5월 가정의 달, 가족들과 함께 꼭 먹어보고 싶은 북한 요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요리 이름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응모기간** 2016. 5. 9. ~ 5. 25.
- 응모방법** 하단에 비밀 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20명
- 시상내역** 편의점 커피음료 교환권(2천원 상당)

방법 하나!

웹진에 게재됐던 요리들 중 선택(하단 표 참조)

방법 두!

웹진에 소개되지 않은 요리 선택

1호	온가족이 좋아하는 '퓨전 두부밥'	22호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 '개성편수'
2호	북한요리 '녹두지짐'	23호	바다 향 가득한 '황해도 굴김치밥'
3호	초여름 시원하게 먹는 '김치말이국수'	24호	속풀이에 좋은 '황해도 바스레기두부탕'
4호	더위에 푹 떨어진 입맛, '냉면'으로 잡는다!	25호	설날 평양사람들의 만찬, '만둣국'
6호	시원하게 먹는 여름철 보양식 '초계탕'	26호	봄맛이 '밝은쟁이볶음'
8호	'평양백김치'의 변신, '파인애플 파프리카 백김치'	27호	바삭한 맛이 일품인 '황해도 김고추장구이'
9호	평양 상인들이 즐겨 먹던 장국요리 '어복쟁반'	28호	북한의 최고 인기음식 '속도전 떡'
10호	감자를 막 갈아 만든다 '감자막가리 만두'	29호	단맛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장연파배기'
11호	연말 잦은 술자리, '가릿국밥'으로 해장하세요!	30호	무더운 여름철 별미 '함경도 감자밥'

12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랭이 떡국'	31호	담백한 맛이 일품인 '한천냉채'
13호	간장으로 비벼먹는 담백한 맛, '해주비빔밥'	32호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는 소고기 맛, '순안불고기'
14호	익은 김장김치의 색다른 변신! '행적'	33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호박멸치지지개'
15호	담백한 닭고기 맛이 일품인 '평양어죽'	34호	천식 기침에 좋은 평안도 '더덕볶음'
16호	밥반찬 술안주로 좋은 '가지미식혜'	35호	추운날엔 따뜻한 '닭국물 평양온반'
17호	맛도 영양도 가득한 '가지찜'	36호	온 가족 즐기는 석쇠구이 '함경북도 굴산적'
18호	시원한 동치미 국물과 옥수수면이 만난 '강량국수'	37호	달콤한 전통 과자, '황해남도 대추밤초'
19호	아삭한 콩나물과 상큼한 채소의 만남 '콩나물 김치'	38호	야들야들한 녹두묵에 쇠고기로 감칠맛 낸 '녹두묵채'
20호	이북식 찹쌀 도넛 '우메기떡'	39호	쫄깃담백한 황해도 특산물, '까나리 볶음'
21호	가을 입맛 자극하는 '감경단'	40호	비타민 가득한 채소가 듬뿍 '남새밥'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근두근 새 봄, 북쪽 친구 마음 얻기!'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u1975@naver.com	라일구
2	**rahkellybom@gmail.com	달님
3	**1982ko@naver.com	소라고동

'복불복! 행운의 통일 사다리타기'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ile24h@naver.com	김성도
2	**h331@naver.com	부라보
3	**shshh@naver.com	통일로 가는길
4	**pine@hanmail.net	툼보이
5	**000hk@hanmail.net	귀신
6	**nsol3000@hanmail.net	법혜
7	**rhaps00@hanmail.net	보현
8	**alfdl95@hanmail.net	수건돌리기
9	**oalexiel@naver.com	알렉시엘
10	**lqkf@yahoo.co.kr	WKWM
11	**drmwjr@naver.com	망부석
12	**j889@gmail.com	캄냐
13	**shman1@lycos.co.kr	부시맨
14	**yroh@kornu.ac.kr	아기호랑이
15	**jeon0207@nate.com	내님은돌고래
16	**lerdodo@naver.com	황미영
17	**hc76@hanmail.net	뫼래양
18	**go1004@hanmail.net	달빛보드레

19	**veluv@naver.com	miru
20	**meend@naver.com	솔레미오
21	**hluv@nate.com	KHHHH
22	**ang007@gmail.com	아라차차
23	**lwoo@naver.com	강국
24	**nedickta@hanmail.net	베네딕따
25	**clove@naver.com	장원정
26	**rahkellybom@gmail.com	달밤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7246-50**	9	010-4006-31**
2	010-5520-20**	10	010-5462-07**
3	010-5658-93**	11	010-2073-09**
4	010-2418-73**	12	010-9318-49**
5	010-6483-66**	13	010-3113-28**
6	010-3450-05**	14	010-3709-71**
7	010-8802-66**	15	010-6565-53**
8	010-2718-64**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